

## 6/15(수) 시편 56–60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믿음은 <내 생의 기반을 어디로 정할까>의 문제입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신중한 고뇌의 과정입니다.

믿음은 마음먹는다고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믿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생깁니다(56:4, 10–13).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은 시인들의 고뇌와 믿음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구덩이, 응덩이(pit, 57:6)>로 표현하곤 합니다.

분리와 단절, 적막, 죽음, 상실, 결핍, 무기력, 어둠의 장소입니다.

제도적/일상적 폭력과 편법, 차별, 억압에 대해(56:1–2, 57:6, 58:1–2, 59:2–3, 60:8)

시인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입으로> 쏟아내는 것뿐입니다(58:3–10, 59:14).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늘 악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보며

<세상은 원래 그런거야>라며 자연 법칙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력/부/권한 가진 자들이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불법이며,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명백한 죄입니다(58편).

왕이신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기도 하십니다(시7:11, 9:7–12, 11:4–7, 96–99편).

시인은 거친 입말마저 기도로 승화시키고(58:11, 59:1, 5, 9, 16–17),

구덩이에서의 구원을 간청하며 <주의 날개(57:1)>로 피합니다.

참된 안전과 안심, 평안과 온기가 있는 피난처입니다.

격렬했던 호흡에 믿음과 찬양이 깃들게 됩니다.

시인은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안착합니다(56:3–4, 13, 57:3, 60:4–5, 7, 11–12).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 갑니다(57:7–11).

내 모든 생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❶ 구덩이에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있습니까?

❷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 더욱 깊고 견고해져 갑니까?

**시편2권** (42-72편)

편	유형	편	유형
42	개인 탄식시	58	공동체 탄식시
43	개인 탄식시	59	개인 탄식시
44	공동체 탄식시	60	공동체 탄식시
45	왕조시편	61	개인 탄식시
46	시온의 노래	62	신뢰의 노래
47	찬양시	63	신뢰의 노래(개인 탄식시)
48	시온의 노래	64	개인 탄식시
49	지혜시편	65	공동체 감사시편(찬양시)
50	계약갱신 제의문	66	찬양시, 개인 감사시편
51	개인 탄식시(참회)	67	감사의 공동체 노래(찬양시)
52	개인 탄식시(혼합)	68	시온 제의기도문
53	개인 탄식시(=14)	69	개인 탄식시
54	개인 탄식시	70	개인 탄식시(=40:13-17)
55	개인 탄식시	71	개인 탄식시
56	개인 탄식시	72	왕조시편
57	개인 탄식시		